

기독교인들에게 :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독일 쇼른도르프 선언

관찰

2001년 9월 11일 후 “테러와의 전쟁” 이라고 선언했으나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6년 후인 지금도 우리는 매일 같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싸움도 매우 자주 폭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역할

우리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 압제와 전쟁적인 폭력이 기독교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의 반 기독교인들은 서방의 산업 국가들의 경제와 군사의 우세함이 기독교라고 보고 있다. 반기독교 민족들은 NATO를 공격적인 기독교 전투력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곳곳을 침략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동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의 과격파 측은 “신 없는 서방”을 새로운 투쟁형인, 자살 암살로 반격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과제

신, 구약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나사렛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됨을 위임 받았다’ 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공언하는 기독교회는 처음 2세기에는 민간단체이며 비무장이었으며 끊임없이 전파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삶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악은 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주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악에서 자신이 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나?

왜곡된 길에서 방향 전환

기독교인들이 자매싸움과 인간의 파멸을 위협하는 것을 계획하고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이며 복음을 위조하는 것이다.

전쟁은 공정할 수 있나? 살인을 감수할 수 있나?

방향전환은 가능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비폭력으로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적대와 공포심을 없앤다. 많은 종교인들과 민간단체들은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일깨우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들이 허사인 것 같고 인간에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적 체제 극복

3천 년으로 향해가고 현재에도 몇 천 년이나 되는 민족의 전통적 습관인 적과 주검의 무기는 점점 더 강력해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궁극에는 이런 무기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점에서 수긍해서는 안 된다. '80년대에 독일의 평화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이사야 2:4 미하 4:3 루터번역)라는 예언적인 계약에 의지했다. 전쟁은 인간의 행위이고, 또 군사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인간이 결정하고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UN이 2차 대전 후에 "미래에 전쟁으로 인한 인간 재앙을 막기 위하여..." (UN헌장에서) 호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목숨을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걸거나 자살 암살자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영웅적 용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용기, 즉 서민적인 남녀들의 용기, 최악의 경우에 자신이 이웃을 죽이는 대신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다.

Stockholm 평화연구소(SIPRI)에서 2006년에 전 세계가 1조 2,040억 달러 (1,204Billion \$)를 군비 채비에 소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재정을 국제적인 무폭력 평화운동사업, 공정함,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보호하는 친 환경단체에 유리하게 쓰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친다. : 남을 전쟁적인 폭력으로 해치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소리 높여 우리 정부도 정치적 방향을 바꾸기를 연명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목표를 안목에 두고 전쟁을 자제하고 결단하기 시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평화를 위한 운동

"독일의 쇼른도르프 선언"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바로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세계 기독교 총회에서 진행중인 "폭력을 끝내자"라는 평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이 운동이 2011년 5월에 거행되는 국제공회 총회의에서 "공정한 평화"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적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라는 평화의 진정서에서 이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일의 쇼른도르프 선언"에 동참하고 WCC(세계 기독교 총회)의 평화운동에 협력하고 각 정부에 적절한 영향을 끼치기를 요구한다.